

보령 앞바다에 벙커A유 유출

정박한 배에서 갑자기 ... 약 1km 확산 방제작업 난항

보령 원산도 앞바다에 벙커A유가 유출돼 1km 가량 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앞바다에 벙커A유가 유출돼 해경과 보령시 공무원들이 방제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월10일 오전 8시30분경 해경 상황실에 “원산도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31톤급 예인선 A호의 기관사 이모씨는 “원산도리 선촌항에 정박해 놓은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경찰에 알렸다는 것이다.

유출된 기름의 양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과 보령시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방제선 1척과 흡착제 260kg, 인원 11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방제 작업에 나섰으나 기름 방울이 약 1km에 걸쳐 퍼져 있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기관사 이씨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3>